

'26. 7. 24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테

○ 폭발물·살해 협박...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

- 7.19 언론은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, 살해 예고 온라인 협박 글이 지속되는 등, 공권력 낭비 및 시민 불안에 대한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보도

○ '인천 사제총기 사건' 1주기, 무기 제작법 지속 유통

- 7.20 언론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 1주기에도 유튜브와 3D 프린터 플랫폼에서 총기 제작 영상·도안이 유통되고 있으며, 관련 규제 법안은 국회 계류돼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

※ 언론은 경찰청이 이런 문제와 관련 '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'을 고도화해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부언

미 주

○ 美, 국무부 "16일 '극좌 테러 대응' 장관급 회의 개최"

- 7.16 언론은 美 국무부가 워싱턴DC에서 '정치적 테러리즘의 재부상'을 주제로 장관급 회의를 소집하여, 서반구·유럽·아시아 국가들과 극좌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

○ 美, "예기치 못한 사태 가능성"....전 세계 자국민에 중동여파 경보

- 7.21 언론은 미국이 중동전쟁 재격화로 인해 자국민에게 여행주의 경보를 발령하고, 중동 체류 자국민들에게 항공편 취소·영공 폐쇄 등 사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

○ 美, 악용사례와 구조 조정 등으로 커지는 AI 반감

- 7.18 언론은 인공지능(AI)의 발달로 각종 악용 사례와 구조 조정 등이 가속하면서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상대로 테러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5월 기준으로 석달 전보다 약 7배 증가했다 보도

※ 美 대학가에서는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반발이 높으며, BBC는 AI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 감시나 군사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는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부언

유럽

○ 튀르키예, 이스탄불·앙카라 등지에서 IS 연루 119명 체포

- 7.19 언론은 튀르키예 내무부가 이스탄불, 앙카라, 안탈리아, 부르사 등 30개 주에서 검경 합동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(IS)에 연루된 용의자 119명을 체포했다 보도

※ 당국은 수년간 IS에 소탕작전을 벌여왔지만 지난 4월 이스라엘총영사관에서 벌어진 IS조직원 총격 등 잔당의 산발적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부언

아프리카

○ 말리, 무장세력 합동 공격에 정부군 50명 사망

- 7.20 언론은 지난 19일 말리 북부에서 투아레그 반군 FLA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JNIM의 공격으로 말리 정부군 50명이 숨졌으며, 양측의 지역 통제권을 둘러싼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

중 동

○ 예멘, “후티 반군, 소말리아 무장조직과 홍해 입구 봉쇄 준비”

- 7.16 외신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소말리아 무장 테러조직인 알샤바브와 공조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 중이며, 후티가 알샤바브에 드론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

※ 외신은 후티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계획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사우디를 겨냥한 독자적 전략이었으나, 우연히 이란의 목적과 겹쳤을 수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튀르키예, 디야르바키르 집회 폭탄테러

- '15. 6. 5. 17:55경 튀르키예 디야르바키르에서 인민민주당 선거 유세 도중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로 5명 사망 및 100여명 부상
- 당 대표 「셀라하틴 데미르타쉬」의 연설 직전 폭발이 발생, 집회가 즉시 중단되고 부상자 구조 및 긴급 구호 활동 등으로 혼란 가중
- 튀르키예 검찰은 ISIS 연계 의혹을 받는 용의자 「오르한 귄데르」를 체포하였으며, 조사 과정에서 ISIS 연계 조직 「도쿠마질라르」와의 연관성도 제기
- 튀르키예 정부는 同 테러를 선거 前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으며, 2019년 튀르키예 법원은 「오르한 귄데르」 등 3명에게 ISIS 연계 폭탄테러 혐의를 인정하여 가중종신형을 선고



테러 상식

<도쿠마질라르(Dokumacılar)>

- (조직성격) ISIS(이슬람국가) 연계 극단주의 네트워크
- (활동지역) 튀르키예 남동부 및 시리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△자살폭탄 테러 △급조폭발물(IED) 설치 △다중이용시설 폭탄 테러
- (활동특징) 시리아에서 ISIS 훈련을 받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內 다중이용시설 및 집회 등을 대상으로 연쇄 폭탄테러 감행
- (주요테러)
 - '15. 6. 튀르키예 디야르바키르 HDP 집회 폭탄테러(사망 5명, 부상 100여 명)
 - '15. 7. 튀르키예 수루츠 문화센터 자살폭탄 테러(사망 34명, 부상 100여 명)
 - '15. 10. 튀르키예 앙카라 평화집회 연쇄 자살폭탄 테러(사망 103명, 부상 500여 명)